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교훈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다. 소는 몸집이 크고 둔하지만, 농경문화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농사일을 돕는 일꾼의 역할을 한다. 농부의 뜻에 따라 말을 잘 들으며 논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는 달구지를 끌며 연자방아를 돌려 방아를 찧기도 한다.

예로부터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말은 수염을 못하는 소는 살고 수염을 잘하는 말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흉수 때 거센 물을 수염을 잘하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힘이 판져 물에 빠져 죽었고, 수염을 못하는 소는 물의 흐름을 타고 내려가 강가 얕은 곳으로 밀려 빠져나가 살게 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긴 장마와 흉수로 마을이 물에 잠기자 축사를 탈출한 소들이 지붕 위로 몸을 피한 모습이나 침수를 피해 때 지어 도로를 달린 소들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한 주인공은 장마 폭우로 떠내려간 소

가 전혀 다른 지방에서 발견된 경우였다. 전북 남원의 젓소는 60km 떨어진 전남 광양시 삼진강에서 발견되었고, 경남 함천의 한우는 80km나 떨어진 밀양시 하남읍 낙동강 변에서 발견되었다.

소가 해엄을 친 건지 떠내려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60km, 80km를 움직인 건 명백한 사실이다. 소는 엄청난 큰 덩치와 행동이 느린 동물이라 수영에 능숙하지 못하다. 다만 물에 동동 떠다니는 수 준이다. 정작 수영에 뛰어난 동물은 따로 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말은 소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한다. 말의 개체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마 흉수에도 말에 대한 뉴스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보통 저수지 같은 곳에서는 말이 소보다 훨씬 수영을 잘한다. 말은 물에 빠지더라도 재빠르게 수영해서 빠져나온다. 그러나 소는 덩치가 커서 물에는 잘 떠 있지만, 수영이 능하지 못해 느릿느릿 허우적거리며 물가로 나온다. 장마기에 흥

수가 나서 급류가 생기면 소는 해엄을 잘 못 치기 때문에 물에 동동 떠서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매우 위험하지만 어디 심하게 부딪혀 다치지만 않으면 발이 닿는 곳까지 떠내려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반면 말은 동물 중에 수준급인 수영 실력이 있어서 엄청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엄을 친다. 실제로는 말은 부피가 작아서 급류에 매우 약하다. 특히 물살이 심한 곳에서는 말은 수영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또 급한 물살에 밀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힘이 빠져 의사를 한다.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추었지만, 결국 힘이 다해 의사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고 해서 우생마사(牛生馬死)라고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교훈이다. 80km나 떠내려온 소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했다면 힘이 빠져 의사를 했을 것이다.

소는 거대한 물길이라는 환경을

본능적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우생마사의 교훈은 장마철 흉수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업에서도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물에 휩쓸려 내려갔던 소가 80km 후방 강가에서 살아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은 소가 물을 거슬러 가려 하지 않고 물의 흐름대로 물에 따라 내려갔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어떤 어려운 흉수 같은 일에 봉착했을 때,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 믿고 말처럼 거슬러 올라가려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반대로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순리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생마사의 교훈을 좌우명으로 새기고 실패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 19 감염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마치 우리는 흉수에 떠내려가는 말과 소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하는데 말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탈출하려 하면 죽고 현실에 순응하며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살게 될 것이며, 가다 보면 코로나 19가 물러난 안전한 강가에 이를 것이며, 강가로 빠져 나온 소처럼 새로운 일상의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올해는 모든 생업에 우생마사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느슨하게 순리대로 살았으면 한다.

기고

영농철 화물차 적재함 인부 탑승 '위험천만'

요즘 농촌 들녘은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따스한 봄철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다 보니 논과 밭엔 각종 농기계와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타 지역 대규모 농업단지 및 특산물 재배 현장 주변을 운행하다보면 가끔씩 가슴이 철렁한 광경을 보게된다.

바로 농촌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들녘에서 일하는 작업인 부를 여러명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인데 이는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이나 짐을 싣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단시간에 빨리 다른지역 농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는 차량편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인부 수송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불법인데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의 농촌지역 현실상 작업 인부 상당수는 나이가 많

으신 고령의 노인들이고 적재함에는 탑승자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어 적재함 탑승자의 경우 운행 중 기복이 심한 비포장 농로에서 급정거, 급회전 등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다치게 된다. 어떠한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에 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아무리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

짧은 거리인데 어떠한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수 있다.

무엇보다 적재함에 승차시 운행 중 추락 위험이 증대되어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위험성을 인식하여 절대 위험한 적재함 탑승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발생시에는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당연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적재함 탑승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단속을 떠나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여 사고 없는 영농철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소방안전교육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등 관공서조차도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학교에서

정규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대형사고를 예를 들어보자 초기대응을 잘하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했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방안전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활용도 미미하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시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등 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실제 체험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 안전교육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정규과정에 포함시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은 한시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지속적인 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재욱/담양119안전센터소방위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